

# 유아의 문법구조 습득에 관한 연구\*

류 관 수

(조선대학교)

Ryoo, Kwan Soo. 2000. A study of Child's Acquisition of Grammatical Structure. *Linguistics* 8-2, 157-175. This article was conducted to present basic materials for early child language acquisi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of early child language acquisition in English and other languages,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on the process of grammatical development of a normal Korean child from age one to three. The main concern here was to see how the grammatical structure of the child's language is developed at the beginning stage.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s that grammatical development of the child's language at the beginning stage depends on the three stages of pivot grammar, transformational grammar, and case grammar. (Chosun University)

## 1. 서 론

유아가 언어사용의 방법을 배우고 또 실제로 매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아에게 언어에 대한 내재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며, 심리언어학은 바로 인식체계인 내재적 능력과 언어지식을 연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심리언어학은 언어학자가 언어의 구조를 탐구하여 밝혀낸 언어지식이 어떻게 실제로 언어수행으로 구현되는가를 밝히는 학문이다. 즉 언어학이 언어지식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competence)의 모형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심리언어학은 언어수행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수행(performance)의 모형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문양수, 1979).

---

\*본 논문은 1999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심리언어학자의 관심은 의사소통(communication) 습득에 있다. 변형생성언어학은 화자와 청자가 언어수행을 통하여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언어지식을 두뇌속에 내재화 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언어습득을 내재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 심리언어학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따라서 심리언어학자가 해야할 일은 유아의 언어 습득 양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관찰하여 그것을 명시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언어의 보편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유아의 언어 발화에 대한 언어문법 발달의 구체적 증거를 알아내고 여러 문법이론, 즉 pivot Grammar, Transformational Grammar, Case Grammar의 심리적 현실성(psychological reality)을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특정 몇몇 유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는 방법에 의하여 어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수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두 중류 가정의 유아로 평균 연령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연령이다.

- 동 - (3년11개월),
- 지 - (3년8개월)
- 민 - (3년2개월),
- 니 - (3년1개월)

### 2.2 연구방법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위 유아의 언어를 수집하였다. 일주일에 두 번씩 오전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이 사용한 언어표현을 일기형식으로 수집하였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 무의식적이며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언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발화 내용은 즉시 노트하고 이를 규칙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 3. 유아의 문법구조습득

일반적으로 유아는 일어 발화를 시작한후 몇 개월내에 자신들의 일상 어휘를 결합하여 이어 발화를 조합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유아는 이어 발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어휘를 연속적으로 발성하는데 그 개개의 발성은 억양이 각각 다르며 두 어휘 사이에 쉼을 두어 발음하는 짧은 기간이 있다. Bloom(1973)은 이 시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연속적으로 쓰인 이러한 단일 단어를 운율적 양식을 통해서 이어 발화로 구분할 수가 있다. 즉 개개의 단어는 하강 음높이 말미곡선(falling pitch terminal conour)으로 나타나며 단어 사이에 쉼이 있고 비교적 동일한 강세(stress)가 있기 때문에 발화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표시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Bloom이 1년 6개월된 자신의 딸인 Allison의 말을 표기하여 설명한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Allison은 아빠에게 복숭아를 칼로 잘라 달라고 복숭아를 든 손을 내밀며 “Peach”/“Daddy”라고 말하였다. 이때 두 단어가 모두 말미의 하강음이 되고 두 단어의 강세는 동일하여 두 단어 사이에 쉼의 간격이 있었다. 따라서 Bloom은 “Peach”/“Daddy”라고 말하였다. 이때 두 단어가 모두 말미의 하강음이 되고 두 단어의 강세는 동일하여 두 단어 사이에 쉼의 간격이 있었다. 따라서 Bloom은 “Peach”/ “Daddy”는 「한번에 한 단어씩」 말하는 연속성을 가진 단일 단어 (successive single word)이지 아직은 이어 발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어 발화의 연속과정 직후에 유아들은 실질적인 이어 발화문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간의 관계에서도 구문관계와 의미 관계가 명확해지며 억양도 두 단어간에 휴지가 개입되지 않고 문장 전체에 걸치게 된다. 이 단계의 유아들은 다음과 같은 이어 발화를 사용한다.

[표 1]

dirty	sock	allgone	sock
here	pretty	hi	Mommy
byebye	boat	allgone	Sticky
more	wet	beepbeep	bang
it	ball	Kutherine	sock

이러한 발화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초 Braine(1963), Brown(1964), Bloom(1973) 등과 같은 학자들이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의 영향을 받아 유아의 발화를 실제로 수집하여 유아의 발화문에서 구문 규칙의 습득을 나타내는 규칙성을 찾고자 하는데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이 무렵에 유아의 문법습득의 초기 단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어 Braine(1963)은 이어 발화문 단계에 나타는 '주축문법'(Pivot Grammar)의 개념을 소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1에서 한국유아의 이어 발화문의 Pivot grammar,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Case Grammar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3.1 Pivot Grammar

둘이 지나면서 유아는 어휘를 사용하여 의사 소통을 하기 시작한다.

유아의 언어는 생후 18개월에서 20개월이 되면 일어발화에서 이어발화로 발달된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전보식 언어를 들 수 있는데 유아는 이때 중요한 단어만 하나씩 끊어서 사용하고 나머지 문법적인 기능어는 생략하여 마치 성인이 전보문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니는 두 단어를 결합시키기 시작한 생후 25개월 무렵에 '이모 빵' '아가 젓' '테비 바' '아가 찌찌'등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를 뚝뚝 끊어서 사용하는 전보식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형태는 명사, 동사, 대명사들이며 반면 기능어에 속하는 접미사, 조사등은 쉽사리 생략되었다.

[표 2] 니의 언어발달 양상

성 인	니(18개월)	니(25개월)
이모에게 빵 주세요	빵	이모 빵
아가에게 젓 주자	젓	아가 젓
텔레비전 보자	테비	테비 바
아가 찌찌(똥)쌌구나	찌찌	아가 찌찌

[표 2]에서 규칙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는 명사이다. 니는 성인의 문장구조에

서 어떤 요소를 선택해서 모방한 언어를 기억했다. 또한 나는 생후 25개월 시점의 발화에서 일관되게 첫머리에 모두 성인의 발화를 사용했다.

이는 니가 성인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선택,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아울러 성인의 문장구조에 대한 지식은 물론 문장의 의미 구조도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지의 MLU 발달 양상

MLU	1.0(18개월)	2.0(25개월)	3.3(32개월)
(1)	와...	빨리 와 ...	누나 빨리 와
(2)	하카...	아빠 하카...	아빠 하카 마니
(3)	매매...	아가 매매...	내가 아가 매매 했어

평균발화 길이 (mean length of utterance)도 지의 경우 [표 3]에서처럼 생후18개월때보다 25개월때에는 1.0에서 2.0으로 증가하였으며, 언어습득 양상도 발달되었음을 알 수있다. 유아의 발화는 자발적이고도 규칙적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유아의 발화가 어휘의 구성소와 일정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유아의 규칙적인 발화는 다음 [표4, 5, 6]에서처럼 주축어-개방어로 분석해 볼 수 있다.

Braine(1963)은 유아가 주축 개방문법을 습득한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가 되는 특징을 이어 발화가 끝날 무렵에 발생하는 이어 발화문 가운데서 찾았다.

먼저 Braine은 유아의 초기 발화의 결합에서 두 단어의 조합을 수집하여 분포분석(distributional analysis)을 하여 동일한 위치에 자주 나타나는 어휘를 주축어라 부르고, 그 위치가 자주 변화하는 어휘를 개방어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이 두 어휘를 결합해서 주로 '주축어+개방어'의 구조로 나타나는 '주축문법'을 정립하였다. 필자가 관찰한 주축문법적인 발화조합의 예를 들면 다음 [표 4, 5, 6]과 같다.

[표 4] 니의 이어 발화조합

주 축 어	개 방 어
엄 마 아 빠 형 아 언니야 합머니 이 모 명 명	매 매 우 유 저 거 추 위 없 어 가 자 취

[표 5] 동의 이어 발화조합

주 축 어	개 방 어
엄 마 합머니 언니야 아 가	쥬 스 저 거 머 거 우 유 어 브 노 아 비 에 맘 마

[표 6] 지의 이어 발화조합

주 축 어	개 방 어
이 모 아 빠 아 압 아 가	가 자 추 어 취 뜨 어 무 여 모 어 젓 주

위의 표에서 니는 생후 25개월때에 '엄마 매매', '엄마 우유', '엄마 저거'등

을 표현했고, 동은 생후 26개월때에 '엄마 쥬스', '엄마 저거', '엄마 머거'등을 표현했다. 또한 지도 생후 25개월때에 '이모 가자', '이모 추어', '이모 쥐'등을 표현했다. 여기에서 니의 발화의 경우 '엄마'는 주축어가 되고 '매매', '우유', '저거'는 개방어로 간주된다. 또한 동의 발화의 경우도 엄마는 주축어가 되고, '쥬스' '저거' '머거'는 개방어로 간주된다. 또한 지의 발화에서도 '이모'가 주축어를 이루고 '가자' '추어' '쥐'등은 개방어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니, 동, 지의 언어자료를 살펴볼 때 주축어 위치에는 주로 '엄마' '아빠', '아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이나 사물의 상태, 지시어 등이 주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개방어의 위치에는 주로 사물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주축어-개방어의 개념이 유아의 모든 언어 관계를 규정짓는 것은 아니다.

동은 생후26개월 때 '아빠 책'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나는 아빠의 책이 방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아빠 책'이라는 소유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고, 다른 하나는 아빠가 책을 보고 있다는 상태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축문법의 경우 동일한 발화문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론적 관계를 간과하고 있는 셈이 된다.

### 3.2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Brown(1973)은 근본적으로 성인과 유아가 동일한 문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의 언어에서 변형생성 문법이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처럼 유아도 언어습득 과정에서 변형문법을 습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Chomsky(1965)의 형태주의(formalism)에 따라 유아의 발화를 변형생성 문법의 구절구조 규칙으로 분석하여 NP, N, VP, V등의 범주와 'NP+VP' 'V+NP'등의 문법적 관계를 습득한다고 하며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에서도 구문론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Brown, 1973).

또한 Brown(1973)은 초기 유아의 발화를 조사 분석한 결과 주축문법을 비판하면서 주축어의 작용을 참조작용 (operations of reference)과 문법관계로 나누어 유아 발화의 여러 가지 구조적 의미관계를 P+N이라는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제시하였다.

[표 7] 유아의 발화 속에 나타난 구조적 의미와 형태

I. 참 조 작 용

의 미	형 태	발 화
명령(nominations) 주목(notice) 반복(recurrence)	that(it) or (there)+N hi+N more+N, other+N	that book, there cat hi belt, hi Mommy more milk, more green
무존재(nonexistence)	no more+N allgone+N	no more milk allogon rettle

II. 관 계

의 미	형 태	발 화
수식(attributive)	Ad+N	big train, red book
소유(possessive)	N+N	Adam checker, Mammy lunch
장소(locative)	N+N	Sweater chair, book table
장소(locative)	V+N	Walk street, go store
행위자+행위(agent+action)	N+V	Adam put, Eve read
행위자+목적어(agent+object)	N+N	Mommy sock, Mommy lunch
행위+목적어(action+object)	V+N	put book, bit ball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어발화 시기의 유아는 주측어-개방어 못지 않게 구문론적 관계도 많이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 유아 즉 니, 지, 동, 민의 관찰을 통한 이어 발화문에 대한 변형생성문법 습득의 고찰이다.

본 절에서는 한국유아의 국어의 구문이 변형생성문법의 관점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발달되는가를 서술문과 명령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2.1 서술문

니는 생후 2년 1개월 16일에 첫 이어 발화를 시작했다. 즉, 2;1(16)에 엄마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며 “배 아파”라고 하였다.

니가 이어 발화시기에 발화한 서술문 형태는 (1)과 같은 것들이다.

- (1) (a) 배 아파 (2:1(16))                      (b) 이모 도아 (2:1(27))



(1)(a)의 “배 아파”는 “배가 아프다”는 의미이고 (1) (b)의 “이모 도아”는 “이모가 좋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a,b)는 NP와 VP가 나타난 최초의 두 발화문이다. (1)은 (2)처럼 나타내진다.

(2) S→NP VP      NP→N      VP→Adj

한편 민은 나와 비슷한 시기에 (3)과 같은 서술문을 발화하였다.

(3) (a) 치치 가 (2:1(13))  
 (b) 멍멍 냐냐 (2:1(27))

(3) (a)의 “치치 가”는 기차가 지나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3b)의 “멍 멍 냐냐”은 개가 음식을 먹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은 (4)처럼 나타내진다.

(4) S→NP VP      NP→N      VP→V

(2)과 (4)는 (5)로 결합될 수 있다.

(5) S→NP VP  
 NP→N  
 VP→ Adj  
           V

다른 한편 동은 첫 이어 서술문을 (6)과 같이 발화했다.

(6) (a) 여기 떠 (2:1(2))  
 (b) 엄마 업따 (2:1(8))

(6) (a)의 “여기 떠”는 감추어진 인형이 “여기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6) (b)의 “엄마 업따”는 밖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6a)와 (6b)는 각각 (7a)와 (7b)처럼 나타내진다.

- (7a)  $S \rightarrow \emptyset \text{ VP}$   
 $\text{VP} \rightarrow \text{Adv Adj}$
- (7b)  $S \rightarrow \text{NP VP}$   
 $\text{NP} \rightarrow \text{N}$   
 $\text{VP} \rightarrow \text{Adj}$

(5)와 (7a,b)는 (8)로 결합된다.

- (8)  $S \rightarrow \text{NP VP}$   
 $\text{NP} \rightarrow \text{N}$   
 $\text{VP} \rightarrow \begin{matrix} \text{Adj} \\ \text{Adj} \\ \text{V} \end{matrix}$

또 한편 지도 첫 이어 발화 시기에 (9)와 같은 서술문을 발화했다.

- (9) 수미가 무어서 (2:1(17))

(9)의 “수미가 무어서”는 “수미가 손을 물었다”는 의미로서 최초로 Ps-  
subj가 발화됐으며 object가 생략되어 있다. (9)는 (10)으로 나타난다.

- (10)  $S \rightarrow \text{NP VP}$   
 $\text{NP} \rightarrow \text{N Psub}$   
 $\text{VP} \rightarrow \text{V}$

(8)을 (10)과 통합하면 (11)처럼 결합된다.

- (11)  $S \rightarrow (\text{NP}) \text{ VP}$   
 $\text{NP} \rightarrow \text{N P subj}$   
 $\text{VP} \rightarrow \begin{matrix} \text{Adj} \\ \text{Adv} \\ \text{V} \end{matrix}$

3.2.2. 명령문

니(1:9(17))가 이어 발화시기에 발화한 명령문 형태는 (12) 같은 것들이다.

- (12) (a) 빠 주            (b) 맘마 주            (c) 우우 주

발화 (12)가 표출된 시기는 생후 1년9개월 경 이었다. (12a)의 “빠 주”는 “빵 주라는 것”이고 “맘마 주”는 “밥 줘” “우우 주” “우우 줘”라는 의미로 각각 사용되었다. (12)는 (13)처럼 나타내진다.

- (13) S→VP            VP→N V

한편 동(1:9(25))도 (14)와 같은 명령문을 발화하였다.

- (14) (a) 멩멍 주            (b) 아가 주

(14a)의 “멍멍 주”는 개에게 밥을 주라는 의미이고, (14b)의 “아가 주”는 아가에 우유를 주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멩멍과 아가는 간접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다. (14)를 “X<sub>1</sub> 에게 X<sub>2</sub>를 줘라”는 구문으로 가정하면 (14)는 (15)와 같이 풀이 된다.

- (15) SD : NP-VP[X<sub>1</sub>-Pobj-X<sub>2</sub>-Pobj-X<sub>2</sub>-Pobj-V]  
           1                            2    3    4    5    6  
       Sc : ∅                            2    ∅    ∅    ∅    6

그리고 (14)를 기술하면 (16)과 같다.

- (16) S→ VP            VP→NV

다른 한편 지(1:20(7))는 첫 이어 명령문을 (17)과 같이 발화했다.

- (17) (a) 아 주            (b) 사 주            (C) 마아 주

(17a)의 “아 주”는 “자신을 안아 줘” “사 주”는 “과자를 사 줘” “마아 주”는 “밥을 물에 말아 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17)의 “주”는 (12)의 “주”와는 의미가 다르다. (17)의 “주”는 Auxiliary Verb로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17)은 (18)과 같이 나타내진다.

(18) S→V      V→V aux

(13)과 (16) 그리고 (18)은 (19)로 통합된다.

(19) S→VP  
 VP→ N  
 V(V aux)

지금까지 4명의 이어발화의 구문발달 과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유아는 두단어를 결합시키기 시작한후 생후 25개월 무렵에 성인의 문장구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선택, 취소할 수 있는 언어 습득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둘째. 문장의 초기 습득과정에서 주로 명사, 동사, 대명사는 보존되고 접미사, 조사등은 쉽사리 생략되었다. 셋째. 문장의 구성성분의 위치와 형태가 유아 나뉠대로의 독특한 규칙성을 갖고 있었으며, 문장구조의 계층은 주로 NP와 VP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넷째. 어휘의 첨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3.3 Case Grammar

주축 개방문법의 분석이 단어의 표면 형태와 분포 연구에만 치우친 결과 유아의 이어 발화를 기술하는데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Bowerman (1973), Brown (1973)등은 단어 조합의 문장 의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Elliot(1981)은 이 시기의 유아들이 주어와 목적어라는 문법관계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유아의 표출된 내용을 문장의 의미론적 관계에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Bowerman(1973)은 격 문법을 최초로 유아 언어에 적용했으며, 또한 Brown(1973)도 격문법을 유아언어에 적용하여 자신이 관찰한 세 유아의 발화를 12개의 자료 집성체로 정리하였다. 최근의 학자로서는 Steinberg(1982)가

있다.

Steinberg(1982)는 문장들의 표현 가능한 이어 발화의 의미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표 8] 유아의 이어의 발화와 그 의미분석

Child utterance	Possible equivalent mature speaker utterance	Possible purpose	Semantic relations (expressed or implied)
Want cookie	I want a cookie	Request	(Experiencer)-State-Object
More milk	I want some more milk	Request	(Experiencer)-(State)-Object;Quantification
Joe see	I (Joe) see you	Informing	Experiencer-State-(Object)
My cup	This is my cup	Warning	Possession
Mommy chair	This chair belongs to Mommy	Warning	Possession
Mommy chair	This Chair belongs to Mommy	Answer to Question	Possession
Mommy chair	Mommy is sitting in the chair.	Answer to Question	Location
Big boy	I am a big boy	Bragging	Attribution
Red car	That car is red	Naming	Attribution
That car	That is a car	Naming	Equation
No sleep	I don't want to go to sleep	Refusal	Experience-State-Object;Negation
Not tired	I am not tired	Refusal	Experiencer-Negation;State
Where coll?	Where is the doll?	Question	Location
Truck table	The truck is on the table	Informing	Location
Daddy run	Daddy is running	Informing	Agent-Action
Joe push	I(Joe) pushed the	Informing	Agent-Action-(Object)
Push cat	I pushed the cat.	Informing	(Agent)-Action-Object
Give candy	Give me the candy	Request	(Agent)-Action-Receiver-Object

[표 8]에 나열된 18개의 평범한 이어 발화에서 주된 특징은 표현의 목적이 다양하고 의미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즉 유아는 경고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거절하고 허풍떨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어 발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화문에서 동작주나, 동작 경험자, 수혜자, 상태, 목적, 소유, 위치, 속성, 부정, 수량 등의 의미 관계 및 개념 등이 내포되어 있다.

조명환(1984)도 Brown의 15가지 의미론적 목록을 기본으로 해서 한국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10가지의 우세한 의미 관계를 기술했다. 본절에서는 조명환의 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니, 동, 지, 민이 발화한 이어 발화에 대한 의미관계를 실제 관찰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1) 행위자-행위의 관계

유아의 발화에서 가장 먼저 관찰된 의미관계는 「행위자-행위」 관계이다. 구체적인 예로는 니의 (1:5(20)) “아가 가” 동(1:7(16))의 “이모 놀자” 등이다. 여기에서 행위자는 주로 살아있는 생체의 어휘가 많이 쓰이며 생체가 아닌 단어 일 경우는 「택시」처럼 행위자로 지각될 수 있는 사물이다. 행위자는 또한 상대방 즉 말을 듣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말하는 사람 자신이나 제3자가 행위자로 쓰이는 예는 드물다. 이 사실은 Clark(1982)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유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이미 주어진 기존 정보이므로 생략하고 새로운 정보만 이야기하는 경향 때문이다.

## (2) 「목적-행위」와 「행위자-목적」의 관계

여기에서 목적이란 상태의 변화를 겪거나 단순히 행위의 작용을 받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물을 뜻한다 (Brown, 1973). 먼저 「목적-행위」의 예를 보면 니(1:9(4))의 “밥 줘” 동(2:1(17))의 “물 줘” “화장 해줘” 등이 있다. 어순 관계에 있어서 영어에서는 (행위-목적)의 어순인데 반하여 한국어에서는 대체로 「목적-행위」의 어순이다. 한국어에서 이에 위배되는 실례는 니(2:2(8))의 “줘 손갈”이다. “줘 손갈”의 경우는 「행위-목적」으로 다른 어순들과 달리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초기의 단어 조합과정에서 어순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행위자-목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어 발화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니(1:7(20)) ; “아빠 무”  
 지(2:1(27)) ; “아가 쉬”  
 동(2:3(6)) ; “산추니가 코미코”  
 민(2:3(8)) ; “이모이가 꼬까”

## (3) 「장소-행위」 「장소-실체」의 관계

유아의 공간 개념은 비교적 일찍 발달하므로 이어 발화의 의미관계에서도 「장소격」이 자주 사용된다. 니(2:1(17))의 “찌기서 노자” 니(2:2(6))의 “시장 가” 동(2:3(7))의 “큰집 가”에서와 같이 「장소-행위」의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는데 「목적-행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순이 영어의 경우와는 반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장소-실체」의 경우 Broom은 실체란 말에 대하여 “실체란 변별성을 가진 개별 존재의 사물(혹은 사람)

인바 본인은 주어(Subject)나 명사(nominal)나 하는 아직 타당성이 분명하지 않은 용어를 피하기 위해 오로지 의미론적 관점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의한 후 “Book there” “Baby table”과 같은 이어 발화를 「실체-장소」에 포함시키고 있다 (Brown, 1973). 따라서 「장소-실체」의 이어 발화관계에서 실체란 변별성을 가진 개별 존재의 사물(혹은 사람)을 일컫는데 한국어에서도 「장소-실체」의 관계가 자주 사용되거나 어순의 변동이 있다. 즉 영어는 「실체-장소」의 어순인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실체가 무생물인 경우 「장소-실체」이고 실체가 일반 행위자인 경우에는 「행위자-장소」의 어순으로 나타난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 니(1:7(23)) ; “엄마 방” (행위자-장소)
- 동(1:9(21)) ; “아빠 여그” (행위자-장소)
- 지(2:1(17)) ; “저기 빵” (장소-실체)

(4) 「소유자-소유」의 관계

「소유자-소유」관계의 이어 발화 표현은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두 발화의 조합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니(2:0(8)) ; “하브이 줄(글)”
- 민(2:1(7)) ; “할매 빵”
- 동(1:10(27)) ; “이모 신”

(5) 「실체-수식」 「수식-실체」의 관계

수식이란 한정사적인 성격을 가진 언어 사용을 의미한다. 어순에 있어서는 영어에서나 한국어에서나 모두 「실체-수식」 「수식-실체」의 형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니(2:2(7)) ; “고마 뜨갓”
- 니(1:8(18)) ; “코 아파”
- 동(1:9(17)) ; “이모 미워”
- 지(2:2(8)) ; “큰 차”

## 민(2:4(7)) ; “무서 엄마”

그리고 사물의 요구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수식이라고 간주되는 발화는 (또--)형식의 표현이다. Brown은 more라는 어휘를 「재발」이라는 의미론적 범주 속에 분류하면서 그 형식적 틀을 주축다움(pivot look)이라고 규정했는데 한국어의 「또」와 마찬가지로 주축다운 어휘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의 「또」는 “더 주세요”라는 요구로서 실용어의 기능을 하면서 아울러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으로도 사용된다. 이중 후자의 기능이 「실체-수식」의 관계로서 예를 들면 유아가 자기의 변기를 보고 “옹까 통”이라는 발화를 처음으로 사용한 얼마후에 유아 자신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재떨이」, 「쓰레기통」을 차례로 가리키며 또 통, 또 통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에 「또」는 각각의 통에 대한 어떤 속성을 추출하여 공통의 어휘를 적용시켰다고 본다.

## (6) 「지시하기-실체」 혹은 「동일성」의 관계

지시하기란 영어에서는 「it, that」 등을 말하며 한국어에서는 「이것 저것」 등을 말한다. 영어에서는 「지시하기-실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어 발화문으로 'it car'등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지시하기-실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어 발화문이 드물게 나타난다. 그래서 조명한은 slobin의 동일성(identification)의 의미범주를 Brown의 「지시하기-실체」의 의미 관계에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의미 관계를 갖는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니 (2:1(16)) ; “이거 꾸꿀”

둥 (1:7(17)) ; “찌거 아빠”

## (7) 「공존격」

공존격은 Brown이 분류한 산출빈도가 낮은 의미 관계의 표현 형태중의 하나로서 얼핏 보기에는 「부르기」로 보이지만 이것은 누군가와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겠다는 뜻을 가진 공존을 의미한다. 영어에서는 공존격이 공존을 나타내기 위해 전치사 “With”를 사용해야 하므로 유아의 이어 발화 시기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으나 한국어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공존격의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이어 발화는 다음과 같다.



- 니 (2:3(17)) ; “나도 우유”  
 지 (2:4(10)) ; “엄마 같이”  
 동 (2:2( 7)) ; “아빠랑 붕”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체로 공존관계는 ‘도’ ‘랑’ ‘같이’ 등의 공존격 조사를 사용하나 ‘엄마 나두’의 경우처럼 공존격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 (8) 간접목적격 여격

여격은 Brown이 분류한 산출빈도가 낮은 이어 발화문의 의미 관계 표현 형태중의 하나로서 ‘-에게’의 간접목적격을 나타낸다. 간접목적격 여격은 공존격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는 자주 나타난다. 한편 간접목적격 여격은 격문법의 분류상 여격(dative)이지만 여격의 의미 기능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여기에서는 간접목적격을 수여자(recipient)에만 한정되어 고려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니 (2:5(14)) ; “엄마 주까” (수여자-목적)  
 민 (2:3(17)) ; “이모 안줘”

이상에서처럼 한국 유아들이 이어 발화 시기에 표현하는 언어의 의미관계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는 Brown이 분류한 「빈번히 사용되는 범주」와 함께 공존격 및 간접목적격 여격이 자주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 결 론

이어 발화는 유아의 언어 습득에서 취급되는 발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화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유아에게는 최초로 한국어나 영어에 있어서 문장다운 표현이 생성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표현들이 유아의 언어 습득 양상과 규칙 체계를 설정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유아의 이어 발화에 대한 문법적인 발달 양상에 대한 기술해 보았다. 즉 유아가 스스로 규칙체

계를 만들어 발화를 습득하는지 혹은 성인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규명하여 보았다. 그 결과 유아언어의 문법적 체계는 성인언어의 문법과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았으며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주측-개방문법 변형생성문법 격문법등으로는 유아의 발화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의 연구에서 유아의 이어 발화에는 몇가지 중요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 유아어에는 공히 주부와 술부 목적어 등의 개념이 있다.
- (2) 유아어의 이어 발화는 규칙적이며 선택적인 telegraphic speech이다.
- (3) 최초의 이어 발화는 발화중 하나가 호칭이거나 감탄어인 경우가 많다.
- (4) 유아어는 이어 발화에서 의미론적 관계를 갖고 그것은 일정한 단어 순서의 통사구조로 나타났다.
- (5) 특히 한국 유아의 명령문의 경우 NP구조의 Deletion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법습득 연구에서 완전한 유아의 이어 발화 문법을 기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유아어를 분석해 본 결과 성인어와 유아어를 동시에 기술할 수 있는 보편 문법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으리라 기대된다. 왜냐하면 유아의 발화 구조 발달 양상이 매우 유사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문양수. 1979. 현대언어학, 서울 : 한신출판사.  
 박경자. 1984. 심리언어학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조명한. 1984.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Bloom, S. M. 1973. One word at a time : The use of single word utterance before syntax. The Hague : Mouton Publishers.  
 Bowerman, M. 1973. Structural relationships in children's utterances : syntax or semantics? In T. E. More.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language. New York: Academic Press.  
 Braine, M. D. S. 1963. The ontogeny of English phrase structure : The first phrase. Language, 39.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ssachusetts:

- Havard University Press.
- Brown, R. & Fraser, C. 1963.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U. Bellugi & R. Brown(Eds), The acquisition of languag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31.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 M.I.T. Press.
- Dale, P. S. 1976. Language development : Structure and function (2nd ed.).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Elliot, A. J. 1981. Child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llmore, D. J.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 R. T. Harms (Eds). University of Linguistic theory. New York : Holt, Rinehort and Winston.
- McNeill, D. 1966. Developmental psycholinguistics. In F. Smith & G.A. Miller (Eds). The genesis of language : A Psycholinguistic approach. Cambridge, Mass. : M. I. T. Press.
- Schlesinger, I. M. 1971. Production of utterance and language acquisition. In D. I. Slobin (Ed.), The Outogenesis of Grammar : A theoretical symposium New York : Academic Press Inc.
- Steinberg, Danny D. & Sakoda, Kumiko. 1982. Teaching two and three-year-olds to read in nursery school. Submitted to Dokusho Kagaku (Science of Reading)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